

닛신보 - 해외생산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닛신보 홀딩스”는 섬유사업에서 해외생산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늘리며 강화하고 있다. 2010년 말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에의 출자비율을 끌어올리는 등 인도네시아에서의 생산을 크게 늘릴 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에서도 새로 투자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작년 말에 인도네시아 자회사인 “니까와 텍스타일 인더스트리”에의 출자 비율을 70%까지 올려, 의결권(議決權)의 2/3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다. 2011년 4월에 완성될 새로운 직포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생산능력은 이제까지의 비율보다 40%늘어난 년산 3,900만 yd가 될 것이다. 한층 더 설비를 확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2010년 말에 공장에 인접해 있는 대지도 구비하여 부지면적을 25% 크게 늘렸다.

염색가공 자회사인 “닛신보 인도네시아”는 작년에 셔츠지용 형태안정가공(shirts地用 形態 安定加工)설비를 도입하여 가공능력을 월산 190만 yd로 늘렸다. 출자비율도 89%로 올랐다. 또한 금년 말 완공을 목표로 후지염색가공라인(厚地染色加工 line)을 도입할 계획이며, 이 계획으로 가공능력을 월산 250만 yd까지 올릴 예정이다.

셔츠봉제 자회사인 “나이가이 셔츠 인도네시아”도 봉제 신공장(縫製新工場)을 건설하고 있으며, 2011년 6월부터 생산을 개시할 예정이다. 신공장에서는 보통의 “형태안정셔츠”외에 호평을 받고 있는 “노 아이론 셔츠(no-iron shirts)”인 “아폴로코트(Apollo-cot)”전용으로 봉제라인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신공장에서는 연간 160만 매의 셔츠를 생산할 계획이며, 그 중에 84만매 정도의 “아폴로코트”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로써 아폴로코트의 연간 생산 매수는 배로 늘어 168만매가 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이외에, 작년 7월에 설립한 합자회사인 “마라카사리 닛신보 데님 인더스트리”에서 “데님용 로프 염색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4월부터 년산 600만 yd의 규모로 데님생산을 개시하였다.

중국에서는 작년 7월에 “선염 셔츠지 마무리 가공 자회사”인 “닛신방직<상주>(日清紡績<常州>)”를 설립하였다. 현지 원단 메이커인 “상주시 무진마항색 직포(常州市 武進馬杭色

織布)”와 제휴하여 금년 7월부터 년산 600만 미터로 선염셔츠지 생산을 개시한다. 생산품은 “상해접시시장”이라는 회사에서 봉제하고 “넛신방적<상하이>”를 통하여 각 어패럴로 판매한다.

인도에서는 “발드만”과의 “셔츠봉제 합자회사”인 “발드만 넛신보 가먼트 컴퍼니”가 금년 1월부터 가동되고 있다. 연간 생산량은 180만매를 계획하고 있다.

이 외에 브라질 자회사인 “브라질넛신보”는 방적 설비 1만추를 증설하여, 2013년에는 8만추 체제로 만든다. 브라질 시장이 성장하는데 맞추면서 동시에 세 번수 등 고부가가치사도 생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해외투자로 “넛신보 텍스타일”을 중심으로 글로벌한 경쟁력을 갖춘 텍스타일 메이커로 빠르게 변신할 방침이다.♣